



## 자동차 실내를 공기 청정 지역으로 만들자

에어컨 없이 운전하기 힘든 계절이 돌아왔다. 자동차 실내를 공기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 공조장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 깨끗한 공기 마시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실내 공기를 책임지는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는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약 1만 마일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지역이나 먼지가 많은 비포장도로 등을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는 필터를 수시로 점검해 평소보다 일찍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필터는 인터넷이나 자동차용품점 등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에어필터는 운전자 스스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공기를 내보내는 송풍구도 꼼꼼하게 닦아준다면 금상첨화이다. 가느다란 핀이 배치된 송풍구와 안 쪽에는 먼지가 묻어 있거나 쌓이는 경우가 많아 깨끗하게 관리하면 더욱 깨끗한 에어컨 바람을 쐬 수 있다.



또 한 가지, 앞 유리 아래 자리한 외기유입구 주변을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다. 먼지나 낙엽 새의 분

비물 등이 자주 들어가게 되는 부분으로 이곳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는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곳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꼭 필요하다.

### ■ 실내 공기 컨디션 결정하는 외기새기 순환



실내 공기를 제대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공조장치의 내기/외기 순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기 순환은 외부 공기의 유입 없이 차량 내부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를 통해 차량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으로, 외부의 매연, 먼지, 악취 등이 심한 곳에서 이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기 순환 모드로 장시간 주행 시 이산화탄소 등이 축적되고 졸음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외부 환경이 나쁘거나 터널 등을 지날 때를 제외하면 가끔씩 외기 순환 상태로 주행하는 것이 좋다.

### ■ 냉매 및 관련 부품 점검하기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점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에어컨 냉매 가스'이다. 에어컨을 작동시켰는데도 실내가 시원해지지 않는다면 에어컨 냉매 가스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냉매 가스는 밀봉된 상태로 새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내부 장치의 노후화 등으로 냉매가 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소를 방문해 가스 유출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냉매 가스에 이상이 없음에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내의 전동팬, 에어컨 벨트, 컴프레서 등 관련 부품까지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 ■ 공기청정기능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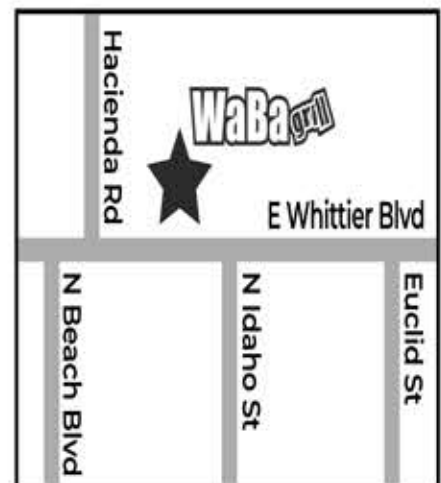
최근 출시된 자동차 가운데는 차량 내 장착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공기 청정 모드를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능동형 공기 청정 시스템'이 탑재된 것도 있다. 공기 청정 모드가 작동하면 내기 순환 변경 / 에어컨 작동 / 풍량 증대를 통해 빠르게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바꾸어 준다. 물론 대기질과 상관없이 실내 공기가 탁하다고 느껴면 공기 청정 모드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 아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운전하고 싶다면 공조장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주자.

사진=shutterstock/play.kia.com

#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